



제1차 이사회 및 신년하례회 개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1월 15일 연합회 사무국에서 2004년 제1차 이사회 및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임원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개최 건, 가칭 경남동부협의회 승인 및 명칭 건, 환경인 회관건립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건, 고문정리 및 영입에 관한 건과 신규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가진 신년하례회에서는 임원간 신년인사를 통해 연합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연합회장동정

공선협 대표자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1월 15일 홍사단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 대표자 회의에 참석했다. 공선협은 우리 사회에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협의회로 이날 회의에서는 17대 총선에 대비하여 활동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충남협의회

창립 제18주년 기념식 및 환경인의 밤 개최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는 지난 12월 26일(금요일) 창립 제18주년 기념 환경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청, 충청남도청의 2003년도 지도 점검 결과 및 2004년도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상체질 감별원 유인호 원장님의 사상체질 감별법에 대한 초청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제2부 환경인의 밤 기념 만찬에서는 그동안 힘들었던 2003년을 정리하고 2004년을 준비하는 환경인들의 화합의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전남협의회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희망기업 현지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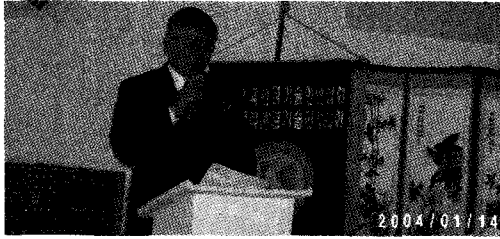


광주·전남협의회(공동회장 방극진·김왕근)는 지난 12월 16일부터 3일간 전라남도청과 함께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희망기업 현지실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사는 전라남도청 공무원과 광주전남협의회 김왕근 회장, 대학교수 4명으로 구성되어 여수산단 한화석유화학(주) 여수2공장 외 5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책임자와 각 부서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기, 수질, 폐기물,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등 2004년부터 3년간 자율적으로 관리할 오염물질 감량내용 등 환경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1문1답 형식으로 실시 한 후 현장확인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협의회

2004년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협의회(회장 도주환)는 지난 1월 14일 하나웨딩부페 4층 수선화홀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고 2004년도 사업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8대 정부회장을 선출하고, 이어 만찬을 통해 회원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소결금속(주)의 김창규, (주)성안의 김기식씨가 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신임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도주환 - 삼익LMS(주)
- 부회장 - 김성기 - 무림제지(주)
강홍석 - 대한방직(주)
- 감사 - 진병호 - (주)SSH,
이종윤 - 21환경기술

경남협의회

14차 정기총회 및 환경정책 설명회 개최

경남협의회(회장 황수남)는 지난 1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전시장에서 2004년도 정기총회 및 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110여명의 회원 및 환경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의 제1부에서는 황수남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배성근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장진우 부산협의회장, 공효식 양산지회장, 김국태 신임지부장, 이덕우·박선재 부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2부에서는 손근수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지도담

당 사무관이 정부 환경정책과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관계법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3부 신임 회장단 선출에서는 회장 및 임원전원은 유임되고 이인재, 박태곤, 공효식 신임 부회장을 추가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도 사업 및 예산을 결산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이어 회원단합을 위한 환경인의 밤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간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본 협의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이도명, 조종화, 김남연 씨에게 연합회장상을, 김현, 이주성, 김태진 씨에게는 협의회장상을 전달했다.

인천협의회

사무식 개최



인천협의회(회장 김명제)는 지난 1월 8일 간석회관에서 200년 사무식을 개최했다. 저녁 7시부터부터 가진 이날 사무식에서는 임원 및 자

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인천협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특히 환경기술인의 명칭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 공포된 뜻있는 해로서 이제 단순 환경관리인이 아니라 환경기술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회 활동에 중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천협의회는 설립초기부터 업종분과로 14년간 활동해 오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행정구역별의 구지회 활동을 원활하게 해왔다. 지난 19년의 시간을 분석하고 토대로 삼아 제2의 인천협의회를 위해 다함께 다짐하기도 했다. ◀